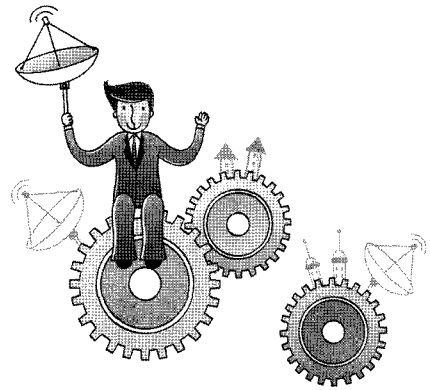


비IT분야 기술료 급증



非IT분야 기술료 수입이 최근 5년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非IT분야(ETRI 제외한 12개 산업기술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05)87억 → ('09)242억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술료 수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非IT분야 기술료 수입 비중은 ('05)16.4% → ('09)43.0%이다.

전자통신 32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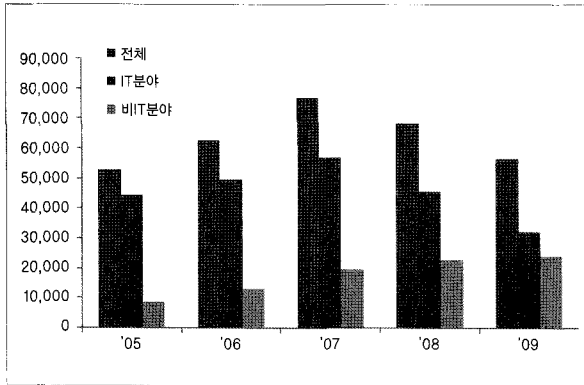
그동안 기술이전이 IT분야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기계, 전기, 에너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기술개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산업기술출연(연)의 2009년도 기술료 이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09년도 기술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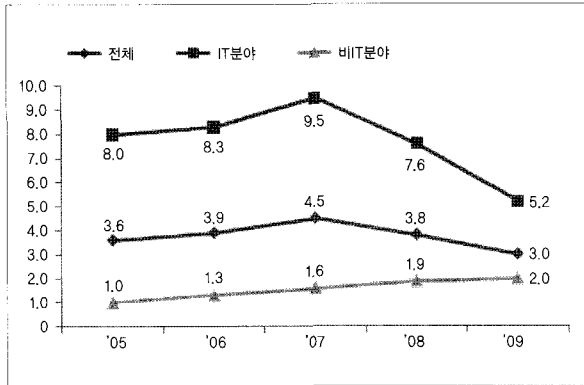
【 각 기관별 기술료 수입 현황('09년, 건수/백만원) 】

구분	전자	철도	기계	전기	에너지	생산	화학	재료	건설	식품	지질	보안	총계
총금액	32,167	5,746	4,618	4,005	2,454	2,234	1,873	1,236	1,149	481	334	113	56,410
(비중)	(57.0)	(10.2)	(8.2)	(7.1)	(4.3)	(4.0)	(3.3)	(2.2)	(2.0)	(0.9)	(0.6)	(0.2)	(100)
건수	369	24	108	54	33	50	19	17	30	29	17	20	770
평균금액	87	239	43	74	74	45	99	73	38	17	20	6	73

【 기술료 수입액 추이(백만원) 】



【 연도별 R&D 생산성 현황(%) 】



도 기술료 수입은 총 564억원으로 전자통신(322억원), 철도(57억원), 기계(46억원), 전기(40억원) 順이다.

산업기술출연(연)의 기술이전 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액은 73백만원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내에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기술료('08 기준, 자료 KIAT)는 공공연구소 53백만원, 대학 20백만원이다.

기술료수입은 '07년 정점으로 감소

지난해 5억원 이상 대형기술이전 거래는 '유기태양전지 생산용 롤프린팅 시스템 및 제조방법' 등 총 11건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동향을 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는 전체 기술료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분야에서 CDMA 기술료 수입이 '08년으로 종료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IT분야는 기술료 수입이 가파른 증가 추세이다.

비IT분야는 ('05) 87억 → ('06)131억 → ('

07)197억 → ('08)228억 → ('09)242억이다. R&D 생산성(기술료/투입연구비)은 3%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IT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2배정도 향상되어 고무적이다. R&D 생산성 현황('08 기준, 자료 KIAT·KISTEP)은 공공연구소 1.9%, 대학 0.6%이다.

비IT분야는 87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010년도 기술료 수입 전망을 보면, 금년도 산업기술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약 580억원 규모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중인 ETRI의 3G 관련 특허침해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수입 증대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조직(TLO)의 전담성·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상품성 제고, 기술 마케팅·홍보 강화를 통해 기술 공급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근무기간 장기화 유도, 전문인력 보강 등(상반기중 규정 신설, 기관평가지표 반영)을 추진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연구기관 차원에서 기술검증 실시(상반기중 규정 신설)할 것이다.

정부 기술이전 활성화 계획

기술이전후 '사업화 지원성과', '고객만족도' 등 평가 지표를 개발(상반기중)하여 기관 평가 등에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계획이다.

ETRI에 의한 대형기술 이전 5억원 이상 거래 사례를 보면, 금속-절연체 전이 임계온도 스위치 및 MIT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기술개발은 2004~2009년이고 국내기업에 이전되어 정액 기술료 20억원과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4%, 5년간이다. 기대효과로 기존 전력용 트랜지스터 기술에 비해 고효율 저발열 기술로 공정비용 및 에너지 절감 가능하며, 연간 1조원 규모 시장이 전망된다.

IEEE802.16d 기반의 단말기 모뎀 기술(HSDPA 기지국 실시간 모뎀SW 기술)이다. 기술개발은 2004년~2006년이고, 해외기업에 이전되었고 정액기술료는 50억원, 5년간이다. 기대효과로 영국 PicoChip과의 공동개발품인 HSDPA 기지국 실시간 모뎀을 활용한 HSDPA 펌토셀 기지국 상용화이다.

ETRI 5억원 이상 대형거래

융합서비스를 위한 미디어서비스 플랫폼 접속 기술 개발이다. 기술개발은 2004년부터 2006년이고 이전기업은 국내기업이다. 정액기술료는 5억원이다. 기대효과로 IPTV 플랫폼과제에의 적용을 통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

차세대 휴대인터넷(WiBro Evo)시스템 연구 개발이다. 기술개발은 2006년부터 2009년이

고, 이전기업은 국내기업으로 정액기술료는 23억원이다. 기대효과로는 400Mbps급 초고속 무선 전송 기술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확보 및 세계 각국과의 공조를 통한 표준화 주도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무선통신 시장 선점 기회 확보이다.

3G 표준특허 라이선스이다. 이전기업은 해외기업이고 경상기술료는 58.2억원(수익의 50%, 2회 분납)이다. 기대효과는 해외선진기업 상대 로열티 확보에 따라 국내 기술 위상 제고이다.

기대효과 증대

2G/3G 이동통신 상호협력 계약이다. 이전기업은 해외기업이고, 정액 기술료는 34.9억원이다. 기대효과로 해외선진기업 상대 로열티 확보에 따라 국내 기술 위상 제고이다.

특허통상실시권 계약이다. 이전기업은 해외기업이고, 정액기술료는 8.1억원이며, 경상기술료는 수익의 50~60%이다. 기대효과로 미활용 특허(미국특허 기준 68건)에 대한 기술료 확보 및 3G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입지 강화이다.

기계연에 의한 유기태양전지 생산용 롤프린팅 시스템 및 제조방법을 들 수 있다. 기술개발은 2008년부터 2010년이다. 이전기업은 국내기업이며, 정액기술료는 50억이고, 경상기술료로는 매출액 3%(5년, 최저 경상기술료 50억)이다. 기대효과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 비해 공정은 6단계, 제조단가는 1/2 수준, 관련 시장('16년 20조)이 급성장하고 있어 대규모 매출 발생이 전망된다.